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 연구

곽영민* · 지상현**

〈요 약〉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경제 양극화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동반성장정책(Win-Win Growth policy)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다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반성장 정책의 도입 및 확산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동반자적 경제 생태계로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반성장 기업에 초점을 두고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동반성장지수가 공시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7년 한국거래소 상장 비금융업 12월 결산법인 총 3,608개 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 동반성장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동반성장평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동반성장에 주목하고,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검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한국 경제 생태계에 동반성장의 인식 및 확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핵심주제어: 동반성장, 회계보수주의

I. 서론

2019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58개 공공기관의 2018년 동반성장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 2007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58개 평가대상 기관을 공기업형(28개), 준정부형(26개), 기타형(4개)으로 나누고, 같은 유형 안에서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 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별 2018년 동반성장 추진실적(75점)과 협력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조사 결과(25점)를 더하여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기관을 큰 폭으로 넓히는 한편, 우수기관 포상 등 상생 협력활동을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의 평가 항목별 세부 점수를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도 반영되며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관에는 전문가가 동반성장의 전략을 세우거나 실천 과제를 찾는 등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중소기업뉴스, 2019-3-18).

이처럼 공공기관은 2007년부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활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반해 재계의 동반성장

활동이 다소 미진하자, 정부는 2010년 동반성장 위원회를 설립하고 2011년부터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 공시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시장의 힘을 통해 대기업의 동반성장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Win-Win Growth Index)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¹⁾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우수등급 기업에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등급 기업에 직권조사 1년 면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역시 가점을 지급하고, 법무부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여기에 국세청은 최우수등급 기업에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가운데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임직원을 선정해 포상한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7년도 동반성장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두산인프라코어, ㈜만도,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S, LG유플러스, 유한킴벌리,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이 동반성장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동반성장기업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 실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인가 하면, 반면

1)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공표대상 기업은 최우수 28개사, 우수 62개사, 양호 61개사, 보통 15개사 및 미흡 15개사로 분류되었다. 최우수 등급에 포함된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코웨이, 현대자동차, KT,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텔레콤(가나다순) 등이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5개사에 대해 “미흡”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하도급법 위반 2개사에 대한 등급 강등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 실제 동반성장 정책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면적으로 윤리적인 동반성장 기업이 내면적으로도 윤리적인 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동반성장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동반성장 수준에 따라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에 차이가 있는 지를 회계보수주의 수준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다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반성장 정책에 주목하고,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검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제시한 1장에는 연구배경 등의 서론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3장 연구설계에서는 표본선정 과정과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가설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공헌점 등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동반성장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진행된 동반성장 관련 연구는 동반성장 정책 이론 연구와 동반성장-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실증 연구로 구분된다. 이에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동반성장 관련 실증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반성장 수준의 측정치로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를 동반성장의 대리변수(proxy)로 활용하므로, 선행연구 또한 이처럼 동반성장지수를 활용한 연구와 경영성과 관련한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백종현 등(2012)은 동반성장 정책 발표가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동반성장 정책의 발표가 주가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민재형·김범석(2013)은 동반성장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은 기업의 재무성과 및 이미지를 개선시킴을 제시하였다. 권예경(2015)은 동반성장 평가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와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이들 간에는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제시하였다. 박동환(2015)은 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은 성장성 및 활동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나, 수익성을 높이고 유동성 및 재무구조를 건실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됨을 보고하였다. 김현아·오광욱(2016)에서는 동반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감사수요 및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여, 동반성장 기업의 외부감사보수 수준이 높으며 또한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정보 가치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송혁준·이문영(2016)은 사례연구로 삼성전자의 동반성장 활동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삼성의 동반성장 활동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며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관리 개선으로 이어짐을 제시하였다. 신영미(2017)는 동반성장 활동이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권상중·이찬호(2018)는 부동산 보유정책에 따라 기업의 동반성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영업활동 목적이 아닌) 투

자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동반성장 수준이 낮으나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영업부동산과 동반성장 수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제시하였다. 김기복·권순동(2018)은 상생결제시스템과 재무성과, 고객성과, 프로세스성과, 그리고 학습·성장성과의 BSC 성과 간의 양(+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류예린·지상현(2018a)은 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 요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주목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류예린·지상현(2018b)은 동반성장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를 활용하여 검증하여, 동반성장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음을 제시하였다.

2. 회계보수주의 관련 선행연구

회계보수주의가 회계관습으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되지만 회계보수주의 자체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으로 회계보수주의 관련 연구(백원선·이수로, 2004; 문상혁 등, 2006; 김정옥·배길수, 2007; 진홍주·박정대, 2011; 이균봉 등, 2011; 유성용·육윤복, 2012; 이균봉 등, 2012; 박상봉·라기레, 2013; 손혁·정재경, 2013; 김영화, 2014; 김진섭, 2015; 유혜영·김새로나, 2015; 이진등, 2015; 이석근 등, 2015; 김운태·라기레, 2016; 정상민, 2016; 최수비, 2016; 변설원·박상봉, 2018 등)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적 책임활동 기업(CSR)의 회계이익의 질 관련 연구(최현정·문두철, 2013; 김영화, 2014; 조문기·김숙연, 2014; 강수진·조문기, 2015; 권한섭, 2016; 김태완, 2018; 이운상, 2018 등)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중 회계보수주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책임활동 기업(CSR)과 회계보수주의 간의 양(+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이다. Choi and Pae(2011)는 회계투명성의 대리변수로 재량적 발생액, 발생액의 질, 그리고 회계보수주를 활용하여 기업윤리(business ethics)와 회계투명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윤리에 전념하는 기업(CSR)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이익조정이 낮고, 발생액의 질은 높으며, 회계보수주의가 강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정엽·송은주(2014)는 CSR 활동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CSR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선호함을 보고하였다. 반면, 사회적 책임활동 기업(CSR)과 회계보수주의 간의 음(-)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이다. Saleswski and Zulch(2013)는 사회적 책임활동 기업(CSR)의 경우에는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이익조정이 높고, 발생액의 질이 낮으며,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양준선 등(2014)은 CSR 활동이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회계보수성의 차이를 검증하여, CSR 활동이 우수한 것으로 공시된 기업은 보수적 회계처리에 대한 유인이 낮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책임활동 기업(CSR)과 회계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결과는 국·내외 연구 모두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3. 가설설정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최근 시점에서 한층 더 중요도가 높아진 동반성장 활동에 주목하였다. 특히 동반성장 관련 선행연구가 주로 동반성장 정책연구 및 동반성장과 경영

성과 간의 관련성 연구에 집중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동반성장 수준에 따라 회계이익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동반성장과 회계이익의 질을 검증한 첫 연구로 앞서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보고되지 않은 바,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계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들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CSR)과 회계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에 있어 다소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계보수주의 간의 양(+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임형주·최종서(20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의 내면 윤리와 외면 윤리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윤리적인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동반성장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기업일수록 내부적으로 산출하는 회계이익의 질(회계보수주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이 동반성장 활동을 수행하는 사유에는 정부당국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활동을 통해 기업의 명성유지 및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자 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동반성장 기업들이 이에 반해 낮은 수준의 회계이익의 질(회계보수주의)을 산출함으로써 그들의 자본시장에서의 평판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계보수주의 간의 음(-)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001년 미국의 Enron

社(사)의 예²⁾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덕적 기업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동반성장활동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연출이론(dramaturgical Theory)에 의하면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윤리경영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을 오도하는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에 힘쓰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회계처리 등을 통해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 및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비용의 수반을 감수하고도 실행하고자 하는 동반성장활동이 실제 기업의 신뢰성에 기반한 것인지 아님 기회주의적 인상관리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동반성장과 회계보수주의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표본

본 연구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 지수를 공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 상장 비금융업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연구표본을 선정하였다. 총 4,541개 표본 중 결측치를 포함한 548개 표본을 제외하고, 평균±3(표준편차) 범위를 벗어나는 극단치 385개 표본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연구표본 수는 3,608개이다.

2) Enron이 2001년 최악의 회계부정으로 몰락하기 전 2000년 Enron은 사회책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 연구모형

2.1 가설검증 연구모형

다음 연구모형은 동반성장활동과 회계보수주의 간의 관련성을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model)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이다. 다음 연구모형에서 기업의 동반성장활동은 동반성장지수를 대리변수(proxy)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각각 (1) 동반성장 활동여부(W-W_D), (2) 동반성장 활동수준(W-W_N)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인 회계보수주의는 Givoly and Hayn(2000)에서 제시한 음(-)의 비영업발생액을 회계보수주의로 측정하였다.

$$\text{회계보수주의(Cons)}_{i,t} = \beta_1 \text{동반성장(W-W_D}_{i,t}, \text{W-W_N}_{i,t}) + \beta_2 \text{SIZE}_{i,t} + \beta_3 \text{LEV}_{i,t} + \beta_4 \text{CFO}_{i,t} + \beta_5 \text{OWN}_{i,t} + \beta_6 \text{FOR}_{i,t} + \beta_7 \text{LP}_{i,t} + \beta_8 \text{BIG4}_{i,t} + \sum \text{IND} + \sum \text{YEAR} + \varepsilon_{i,t}$$

Cons=회계보수주의: Givoly and Hayn(2000)의 음(-)의 비영업발생액으로 측정

W-W Growth=동반성장지수

W-W_D: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³⁾

W-W_N: 동반성장지수 평가점수

(평가등급 우수 4, 양호 3, 보통 2, 개선 시 1의 값 부여)

Control Variables:

SIZE: 기업규모, LEV: 부채비율, CFO: 영업현금흐름, OWN: 최대주주지분율, FOR: 외국인지분율, LP: 상장기간, BIG4: 감사인규모, YEAR: 연도더미, IND: 산업더미

위 연구모형에서 β_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을 나타낸다면, 동반성장활동과 회계보수주의 수준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설이 지지된다.

2.2 회계보수주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Givoly and Hayn(2000)의 음(-)의 비영업발생액을 회계보수주의 측정치로 활용한다.

$$\text{비영업발생액} = (-1) * (\text{TA}_t - \text{OA}_t) / \text{A}_t^{4)}$$

TA_t=t년 감가상각비 차감 전 총발생액
= 당기순이익+감가상각비-영업현금흐름

OA_t=t년 영업발생액
=(매출채권증가분+재고자산증가분+선급비용증가분)-(매입채무증가분+미지급법인세증가분)

A_t=t년 총자산

비영업발생액은 대손상각비, 평가차손익, 자산처분손익, 감액손실, 기타비용의 발생액과 자본화 및 수익의 이연 등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이들 항목들은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그 크기 및 인식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비영업발생액이 음(-)의 값을 가질수록 회계이익은 보수적으로 산출된다.

2.3 통제변수의 조작적 정의

기업규모(SIZE)는 자산을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부채비율(LEV)은 자산 대비 부채로 측정하였으며, 영업현금흐름(CFO)은 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으로 측정하였다. 최대주주지분율(OWN)은 보통주 발행 총주식수 대비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총주식수로 측정하였으며, 외국인지분

3)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하는 기업이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는 동반성장 활동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4) 본 연구에서는 결과해석의 편의를 위해 비영업발생액에 (-1)을 곱하여 비영업발생액((-1)*(TAt-OAt))과 회계보수주의가 양(+)의 관계를 갖도록 조작하였다.

을(FOR)은 보통주 발행 총주식수 대비 외국인투자자 총주식수로 측정하였다. 감사인규모(Big4)는 표본기업 감사법인이 삼일PwC, 삼정KPMG, Deloitte안진, EY한영 중 하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s)

이다. 상장기간(LP)은 해당 기업의 상장기간을 자연로그 취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그 외 연도별 산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YEAR)와 산업더미(IND)를 추가하였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의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요약한 표이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여부 (W-W_D)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Dummy Variables)
	동반성장수준 (W-W_N)	평가등급 우수기업에 4, 양호기업에 3, 보통기업에 2, 그리고 개선기업이면 1의 값을 갖는다.
회계보수주의(Cons)		Givoly and Hayn(2000)의 음(-)의 비영업발생액으로 측정된 값
통제변수	기업규모(SIZE)	Ln(총자산)
	부채비율(LEV)	총부채/총자산
	영업현금흐름(CFO)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대주주지분율(OWN)	대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보통주 발행 총주식수
	외국인지분율(FOR)	외국인투자자 지분율/보통주 발행 총주식수
	상장기간(LP)	Ln(당기연도-상장연도+1)
	감사인규모(BIG4)	감사법인이 삼일, 한영, 삼정, 안진 중 하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연도더미(YEAR)	각 연도별 더미변수
산업더미(IND)	각 산업별 더미변수(7개의 산업으로 구분)	

IV. 연구표본

1. 기술통계량

다음 <표 2>는 본 연구표본의 기술통계량이다. 첫째, 연구표본의 동반성장 활동기업(W-W_D)은 5.1%로 나타났으며, 동반성장지수(W-W_N)는 .102로 나타났다.⁵⁾ 둘째, 회계보수주의(Cons) 측정치의 평균값은 -0.438로 나타났

다. 부채비율(LEV)은 45.2%, 영업현금흐름(CFO)은 0.045, 대주주지분율(OWN)은 44.3%이고 외국인지분율(FOR)은 7.5%로 나타났다. 상장기간(LP)의 자연로그값은 2.819, 감사인규모(BIG4)는 .715로 표본기업의 71.5%가 BIG4 회계법인에서 감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모형의 변수들이 평균값-중위수 간의 차이가 표준편차 대비 그리 크지 않아, 연구표본의 정규분포 가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금융업을 포함하여) 실제 연간 코스피 상장기업 약 780개 중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은 약 160~180개이나,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의 경우 대기업이라 표본선정 과정에서 많은 기업표본이 극단치 등으로 제거되어 실제 연구표본에서의 동반성장 평가기업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량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MIN	MAX
W-W_D	.051	.000	.204	.000	1.000
W-W_N	.102	.000	.400	.000	2.000
Cons	-.438	-.264	.808	-3.012	.839
SIZE	26.735	26.558	1.279	23.928	30.511
LEV	.452	.464	.200	.001	.934
CFO	.045	.044	.067	-.171	.255
OWN	.443	.450	.158	.083	.900
FOR	.075	.034	.092	.000	.386
LP	2.819	3.135	.831	.693	4.043
BIG4	.715	1.000	.452	.000	1.000

2. 상관관계 분석

다음 <표 3>은 가설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 Pearson 상관관계 결과이다. 이는 가설검증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를 제외한 이변량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Pearson 상관관계 분석결과, 동반성장여부(W-W_D) 및 동반성장지수(W-W_N)는 회계보수주의(Cons)와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동반성장을 하거나 그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Pearson 상관관계 결과는 독립변수-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결과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W-W_D	W-W_N	Cons	SIZE	LEV	CFO	OWN	FOR
W-W_N	.959**							
	0.000							
Cons	.015	.032						
	.514	.167						
SIZE	.363**	.358**	.031					
	.000	.000	.178					
LEV	.147**	.150**	-.042	.247**				
	.000	.000	.068	.000				
CFO	-.054*	-.058*	.118**	.017	-.262**			
	.018	.011	.000	.470	.000			
OWN	-.030	-.028	-.147**	-.030	-.099**	.000		
	.191	.228	.000	.183	.000	.993		
FOR	.162**	.155**	.203**	.479**	-.151**	.149**	-.23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LP	-.026	-.038	-.199**	.033	-.033	-.062**	-.166**	.038
	.250	.094	.000	.147	.151	.007	.000	.100

주) *, **는 각각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가설검증 결과

동반성장활동과 회계보수주의 수준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첫째, Panel-A는 동반성장여부(W-W_D)와 회계보수주의(Cons) 간의 관련성을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model)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Adj.R²)은 .235, 모형의 적합도(F)는 23.576**으로 나타났으며, 동반성장여부(W-W_D)와 회계보수주의(Cons)는 5%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반성장활동을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Panel-B는 동반성장수준(W-W_N)과 회계보수주의(Cons) 간의 관련성을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model)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Adj.R²)은 .237, 모형의 적합도(F)는 23.910**으로 나타났으며, 동반성장수준(W-W_N)과 회계보수주의(Cons)는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반성장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Panel-A 및 Panel-B 검증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Panel-A 통제변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반성장여부(W-W_D)와 회계보수주의(Cons) 간의 관련성을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model)으로 검증한 연구모형의 통제변수 결과이다.

첫째, 기업규모(SIZE)는 회계보수주의(Cons)와 대략 10%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채비율(LEV)은 회계보수주의(Cons)와 1% 유의수준에

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업현금흐름(CFO)은 회계보수주의(Cons)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일수록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주주지분율(OWN)은 회계보수주의(Cons)와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국인지분율(FOR)은 회계보수주의(Cons)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상장기간(LP)은 회계보수주의(Cons)와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 상장기간이 장기인 기업일수록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감사인규모(BIG4)는 회계보수주의(Cons)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받는 기업일수록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추가분석 결과

동반성장 평가대상은 대기업 집단으로 이러한 표본구성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결과가 동반성장 기업의 영향이 아니라 기업규모의 효과에 따른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한해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동반성장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고, 동반성장 평가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동반성장 평가를 받는 기업 수가 많지 않다.⁶⁾

따라서 본 연구표본에는 기업의 동반성장 측정치가 0의 값을 갖는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동반성장 대상 기업은 대기업이므로, 본 연구결과가 동반성장 기업의 특성에 따른 결

과가 아니라 대기업 특성에 따른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고자 추가분석에서는 전체 표본기업 중에서 동반성장 평가를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표본을 구성하여 연구가설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표 4> 동반성장활동과 회계보수주의
 $(Cons_{it} = \alpha_1 + \alpha_2(W-W_D, W-W_N)_{it} + \text{Control Variables})$

	Panel-A : 동반성장여부와 회계보수주의 (linear regression model)			Panel-B : 동반성장수준과 회계보수주의 (linear regression model)		
	B	t	p	B	t	p
W-W_D	.225*	2.104	.035			
W-W_N				.207**	3.317	.001
SIZE	-.031	-1.666	.096	-.036*	-1.985	.047
LEV	.355**	3.574	.000	.359**	3.611	.000
CFO	1.039**	4.010	.000	1.046**	4.046	.000
OWN	-.374**	-3.216	.001	-.370**	-3.188	.001
FOR	1.422**	6.211	.000	1.425**	6.235	.000
LP	-.209**	-10.191	.000	-.206**	-10.043	.000
BIG4	.136**	3.360	.001	.138**	3.411	.001
YEAR, IND	Included			Included		
	Adj.R ²		.235	Adj.R2		.237
	F		23.576**	F		23.910**

주1) Panel-A 및 Panel-B VIF 최대값 : 2.358
 주2) *, **는 각각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다음 <표 5>는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수준(W-W_N)과 회계보수주의(Cons) 간의 관련성을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model)으로 검증한 결과이다.⁷⁾ 모형의 설명력(Adj.R2)은 .781, 모형의 적합도(F)는 156.889**로 나타났으며, 동반성장수준(W-W_N)과 회계보수주의(Cons)는 1% 유의수준에서 양

(+)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가분석 결과에 의하면 동반성장활동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가분석에서도 지지되었다.

6)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동반성장 수준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7) <표 5>의 통제변수 결과는 <표 4> Panel-B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결과해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표 5> 동반성장활동과 회계보수주의: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Cons_{it} = \alpha_1 + \alpha_2(W-W_N)_{it} + \text{Control Variables})$$

	동반성장수준과 회계보수주의(linear regression model)		
	B	t	p
W-W_N	.522**	4.694	.000
Control Variables	Included		
	Adj.R ²		.781
	F		156.889

주1) 동반성장 평가대상 표본수 : 175개 기업연도

주2) *, **는 각각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동반성장 활동에 주목하고, 이러한 동반성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회계이익의 질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동반성장 측정치는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는 동반성장 평가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회계이익의 질은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내부 회계이익의 질 측면의 회계보수주의는 Givoly and Hayn(2000)에서 제시한 음(-)의 비영업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기간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 평가지수를 평가·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로 총 연구표본 수는 3,608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 동반성장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반성장 평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지지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동반성장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회계이익의 질 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동반성장 기업의 어떤 요인이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하

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좀 더 정교한 실증분석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 세계 경제의 둔화 가능성, 국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제도적 방안으로써 동반성장 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미약하나마 우리 경제에 동반성장 활동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강수진·조문기(2015), “기업의 환경적 책임활동이 회계이익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45, 189-208.
2. 김기복·권순동(2018),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의 영향요인과

-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JITAM*, 25(1), 105-124.
3. 김영화(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이익조정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40, 147-163.
 4. 김윤태·라기레(2016), “신용등급조정에 대한 이익유연화와 회계보수주의의 역할,” *회계정보연구*, 34(2), 81-112.
 5. 김정옥·배길수(2007),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의 보수주의: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32(2), 89-115.
 6. 김진섭(2015), “기업지배구조와 회계보수주의 관련성 연구,” *세무회계연구*, 45, 257-279.
 7. 김태완(2018),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에 따른 발생액과 현금흐름의 지속성과 가치평가의 효율성,” *세무회계연구*, 58, 25-55.
 8. 김현아·오광욱(2016), “동반성장활동 기업의 외부 감사수요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34(3), 433-457.
 9. 권상중·이찬호(2018), “동반성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부동산 보유정책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55, 161-186.
 10. 권예경(2015). 동반성장 우수 대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리인비용과 이익조정, *국제회계연구*, 61, 129-154.
 11. 권한섭(2016),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금융업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50, 193-211.
 12. 류예린·지상현(2018a), “기업지배구조와 동반성장 간의 관련성 연구,” *산업경제연구*, 31(4), 1419-1442.
 13. 류예린·지상현(2018b), “동반성장 기업의 이익조정 연구: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정보를 활용하여,” *세무회계연구*, 57, 75-95.
 14. 민재형·김범석(2013), “대기업의 효율성 추구는 협력기업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는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과 공급사슬 효율성의 관계,”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4(4), 591-610.
 15. 문상혁·박종국·신세나(2006),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보수주의의 차별적 인식,” *회계학연구*, 31(3), 215-242.
 16. 박동환(2018), 동반성장 활동의 지속성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박상봉·라기레(2013), “이익조정과 보수주의-적자회피기업과 Big-bath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2(5), 261-285.
 18. 변설원·박상봉(2018), “회계 보수주의와 경영자 초과보상,” *경영과 정보연구*, 37(2), 187-207.
 19. 백원선·이수로(2004), “보수주의, 이익지속성 및 가치평가,” *회계학연구*, 29(1), 1-27.
 20. 백중현·권순범·최병구(2012),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지식경영연구*, 13(5), 139-160.
 21. 손혁·정재경(2013), “감사인의 성별이 감사품질과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8(2), 327-364.
 22. 송혁준·이문영(2016), “대기업의 동반성장활동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효과: 삼성전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25(5), 113-139.
 23. 신영미(2018), “동반성장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7), 71-78.
 24. 양준선·여영준·권오진(2014), “CSR 활동의 우수성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3(6), 1931-1961.
 25. 유성용·육윤복(2012). “자본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수주의 회계의 역할,” *세무회계연구*, 45, 257-279.

26. 유혜영·김새로나(2015),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재무보고 방식에 미치는 영향: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40(6), 41-80.
27. 이건·한승수·김용길(2015), “경영자 능력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40(3), 257-297.
28. 이석근·양동훈·조광희(2015), “상장폐지기업의 상장폐지전 보수주의 성향,” *회계학연구*, 40(5), 1-34.
29. 이윤상(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부지수와 조세회피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57, 55-73.
30. 이균봉·지상현·류예린(2011), “회계보수주의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상호작용이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4(1), 587-605.
31. 이균봉·지상현·류예린(2012),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보수주의의 관련성 : 감사품질에 따라,” *회계정보연구*, 30(3), 153-182.
32. 이정엽·송은주(2014), “지속적인 CSR활동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19(2), 121-148.
33. 임형주·최종서(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조정 : 외면적 기업윤리와 내면윤리는 일치하는가?,” *회계저널*, 22(5), 257-309.
34. 조문기·김숙연(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이익의 질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41, 213-231.
35. 전홍주·박정대(20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과 회계정보의 보수성,” *세무회계연구*, 28, 115-136.
36. 정상민(2016), “회계 보수성이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감사인 규모를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47, 187-206.
37. 최수비(2016), “조세회피 및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49, 1-36.
38. 최현정·문두철(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회계투명성 간의 관계,” *회계학연구*, 38(1), 135-171.
39. Choi, T. and Pae, P.(2011), “Business Ethic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3, 403-427.
40. Givoly, D. and Hayn, C.(2000), “The Changing Time-series Properties of Earnings, cash Flows and Accruals: Has financial Reporting become more Conservativ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 287-320.
41. Salewski, M. and Zulch, H.(2013), “Th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nd Earnings Quality,” *Working Paper*.
42. Watts, Ross L.(2003a),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1 :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ccounting Horizons*, 17(3, September), 207-221.
43. Watts, Ross L.(2003b),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2 : Evidence and Research Opportunities,” *Accounting Horizons*, 17(4, December), 207-221.

Abstract

A Study on the Accounting Conservatism of Win-Win Growth Corporate

Kwak, Young-Min* · Ji, Sang-Hyun**

The objective of our study is to examine the Earnings Quality of Win-Win Growth Corporate. The level of Win-Win Growth Corporate is measured by Win-Win Index of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Earnings Quality is proxied by Accounting Conservatism that is measured by the method of Givoly and Hayn(2000). The samples of this study selected from listed corporate, consist of 3,608 observations can be collected from 2011 to 2017 at TS-2000.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e Win-Win Growth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evance on Accounting Conservatism is the proxy of internal Earnings Quality. This means that Win-Win Growth corporate has a higher the Earnings Quality relatively. These results were supported by additional analysis that used the sample that is made up the Win-Win Growth Corporate completely. According to our study, we can expect that the Earnings Quality of Win-Win Growth corporate is true as steel.

But this study have some limitation. Especially we can't explain the reason why the Win-Win Growth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evance on Earnings Quality. And, despite additional analysis, there are the limitation of controlling for endogeneity. We hope that our paper can help investor making a economic decision on investment and officials making a effective policy on the Win-Win Growth.

Key Words: Win-Win Growth, Accounting Conservatism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Ulsan University, ymkwak@ulsan.ac.kr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 Commerce, BaekSeok University, shji@bu.ac.kr